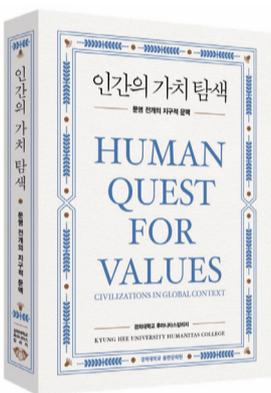




대학주보

인가탐 전자책 발간 다른 교양서적 확대 목표

박류빈 기자 f508f508@khu.ac.kr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사진=커뮤니케이션센터 제공)

필수교양 『인간의 가치 탐색』(인가탐) 교재가 전자책으로 발간됐다. 출판문화원은 이를 시작으로, 교양서적의 전자책 발간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나오는 인가탐 개정 6판이 종이책 30,000원, 전자책 24,000원에 판매된다. 또한 전자책 앱 미북(meBOOK)에서 12,000원에 6개월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커뮤니케이션센터 최선희 팀장은 “양 캠퍼스 총학생회와 협의를 통해 올해 말까지 전자책 대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금까지 교내에서만 유통됐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 6판부터는 교외 일반 독자에게도 판매한다. 최 팀장은 “이를 통해 교재의 활용 범위가 대학 내부를 넘어 외부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양서적의 전자책 출판은 타 대학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었다. 하지만 해당 대학 모두 불법 복제와 저작권 문제에 고충을 겪었다고 전했다. 중앙대 출판부는 지난 학기 공통교양 『아트레프레너십 시대의 생활 속 회계』 교재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다. 중앙대 학술정보팀은 “인세에 따른 수익 문제와 저작권 문제 때문에 전자책 도입은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는 『대학 글쓰기』를 2년 전에 전자책으로 발

간했다. 서울대 출판문화원은 “대부분의 학생이 들어야 하는 『대학 글쓰기』 교재를 전자책으로 발간했는데, 불법 복제 문제를 막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도 역시 전자책 발간을 위해 오래 전부터 노력했지만, 저작권 협의의 어려움으로 계속 미뤄졌다. 저자인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재편찬위원회에서 반대했기 때문인데, 전자책 발간 시 학생의 불법 복제 우려가 컸다. 최 팀장은 “편찬위원회 측에서도 이제는 전자책 시류를 인정하고 협의에 응했기 때문에 이뤄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학생의 전자책 수요가 많아진 것도 영향을 미쳤다. 김태웅(사회학 2025) 씨는 “종이책 대신 많이 구매할 것 같다”면서도 “불법 복제를 줄여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작권에 대한 다른 조치가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캠 총학은 “입기 초부터 꾸준히 커뮤니케이션센터와 회의를 통해 학생의 요구를 전달한 결과 전자책 발간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복제 방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모든 교과목 전자책 출판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 문제는 과제에 최 팀장은 “저렴한 대여료로 발간하는 만큼 불법 복제를 지양하자는 인식을 제고해달라는 홍보를 총학에 부탁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출판문화원은 오는 19일 15시 중앙도서관에서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한 ‘저작권 특강과 체험형 워크숍’을 준비 중이다.

사람

명 <서울 기획·보도팀장>
김규연(무역학 2020)
<국제 기획·보도팀장>
권도연(중국어학 2024)
<문화·스포츠팀장>
이환희(미디어학 2021)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경희인,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 개최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지난 20일 오전 11시 평화의전당과 선승관에서 동시에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온라인 송출을 통해 양 캠퍼스에서 동시에 진행되었다. 김진상 총장은 축사를 남기며 개인적인 성찰, 사회적인 성찰, 그리고 시대적 성찰을 강조했다. 김 총장은 “경희를 넘어 더 넓은 세계에서 자신의 꿈을 이루었을 때 여러분과 함께 그 모든 아름다운 가치 하나하나를 공유하겠다”라고 말하며 졸업생들의 앞날을 응원하며 졸업을 축하했다. (사진= 강다윤, 서라수 기자)

대학 AI 위원회 출범 공대 위원회, 규정시스템 성과도

하시언 기자 hse0622@khu.ac.kr

AI 관련 이슈를 논의하는 위원회가 출범한다. AI 위원회는 대학 차원의 AI 시스템 구축 필요성, 교육·연구·행정 전반의 혁신적 활용을 실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학교는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며, AI 교육, 연구, 산학협력, 행정 전략 총괄과 교육 과정 개발 등이 목표다. 위원장으로는 김진상 총장이, 부위원장으로는 부총장단, 사무국은 DX추

진단으로 구성된다.

AI를 연구하는 부서는 타 대학에서도 볼 수 있다. 서울대 AI 위원회는 지난 2019년에 설치돼 AI 교육, 연구, 산학협력 전략을 총괄한다.

서울대는 현재 AI 위원회를 중심으로 도서관 챗봇을 대규모 언어 모델(LLM) 기반으로 운영 중이고, 범용 생성형 AI 플랫폼을 이용해 생성형 AI 행정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충남대에서도 인공지능혁신위원회가 올해 신설돼 AI 역량 강화 교육과정 개발, 학습지원 도구 개발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생성형 AI 플랫폼 3가지 시범 도입안

우리학교 AI 위원회는 지난 27일 있었던 고학연찬회를 통해 생성형 AI 플랫폼 도입이 핵심 사업이라고 밝혔다.

생성형 AI 플랫폼 시범 도입안에는 총 3가지가 있다. 시나리오 기반 챗봇, LLM 기반 챗봇, 범용 생성형 AI 플랫폼이다.

시나리오 기반 챗봇은 미리 정의된 의도대로 대화 시나리오와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챗봇으로, 우리학교 쿠봇이 대표적인 예다.

2면에 계속 →